

「동아시아공동체(東亞共同體)의 구상 및 일본, 한국의 지역주의 외교」

글쓴이: 黃美惠

제 11 회 One Asia 재단 국제강좌에서는 서흥경(徐興慶)총장께서 특별히 와세다 대학교 아시아 태평양연구학과의 이종원(李鍾元)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이종원 교수님께서도 도쿄대학교를 졸업하셨고 당대 최고의 동아시아국제정치관계 및 한반도 연구 영역의 유명하신 한국의 학자이십니다.

서흥경 총장님은 특별히 이종원 교수님을 추천하신 이유가 바로 이종원 교수님은 일본사회에서 높은 인지도가 있으시고 사람들에게 존경 받는 학자이십니다. 또한 일본 프로그램에 한반도에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종원 교수님을 프로그램을 꼭 초청하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호평을 받고 있는 일본 NHK 방송국 <日曜討論> (Sunday Debate) 프로그램도 이 중에 하나입니다.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 강좌가 끝난 후에 이종원 교수님은 본교의 이사장이신 장경호(張鏡湖) 교수님을 찾아 뵈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경호 회장께 올해 10 월에 신간서적 《朝鮮半島危機から対話へ》(한반도는 위기 중에서 대화가 됐다.)도 드릴 예정입니다. 이후에 두 분이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종원 교수님의 대표저자 『東アジア冷戦と韓米日關係』가 (도쿄대학교 출판사, 1996 년) 있었고, 다른 학자와 공동 저술로 작성된 편찬물도 많습니다. 본 강좌와 주제를 맞추시기 위해서 “동아시아 공동체” 로 구상하여 1990 년부터 동아시아의 지역협력체계의 구체적인 동향에 대하여 분석하셨으며, 그리고 아세안과 중국, 한국, 일본 등 주변 나라의 외교 전략도 같이 분석하셨습니다. 80 분이란 짧은 시간 안에, 이종원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하시고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상태에도 뚜렷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게다가 가장 명료한 방식과 단어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학습성과가 최대로 높아졌습니다. 이종원 교수님의 교육이념이 과연 탄복할 만 하였습니다. 아래는 이종원 교수님이 논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1990 년대부터 21 세기까지는, 국제정치의 새로운 단위인 ‘구역’ 라는 것을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간의 대립관계가 냉전을 마침에 따라 점점 온화하고 있으며, 각 국가간의 경제 의존관계도 국제화의 경향으로 속속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구역화’ 와 ‘구역주의’ 의 개념으로 도처에 형성되고, 유럽 연합(歐盟EU), 아프리카연합(非洲聯盟AU), 아세안(東協ASEAN) 등 173개 구역 기구가 전 세계에서 활성화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런 흐름을 이끌고 있는 유럽에서는, 영국의 브렉시트(脫歐Brexit)와 각국으로 포퓰리즘이 확산되는 등 현상을 보면, 지역통합에 대한 반동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의 틀

을 유지하려는 생각이 여전히 강합니다. 이것은 ‘구역 공동체’가 주권국가의 규제를 넘어서는 동시에, 국제화에 가져오는 장점을 누리면서 부작용도 억제할 수 있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구역 공동체’라는 의미를 살펴봅시다. ‘동아시아 공동체’의 개념과 기능은 미국과 중국 간에 세력 이전과 경쟁을 대신하여 기존의 민주주의적인 신분 승인의 기제를 넘어서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치학의 관점에서 보면, 구역이라는 것은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역은 지리적인 실체뿐만 아니라 역사적, 정치적 이해활동의 산물입니다. 예를 들자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인 명칭의 발생 계기는, 제 2 차 세계대전 후에 서유럽과미국동맹을 일체화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시아와 태평양(Asia and Pacific)’은 학자들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the Asia-Pacific)’을 강조하기 위하여 새로운 명사를 만들고 ‘아태’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동아시아’의 등장과 같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경제성이 국제 정치성으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과 미국도 ‘인도양-태평양 해역’을 제시했는데, 이종원 교수님이 기본 개념을 설명하시면서 나아가 ‘동아시아’의 형성과정을 정치학의 관점으로 상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동아시아’는 90년대부터 ‘공동체’를 목표로 시작하게 전환되었습니다. 아세안을 제창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이 가입하여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상을 잘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 일본, 한국 등과 “중등강국”의 외교 멤버로서 지역 협력의 촉진을 추진하는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7년 아시아의 금융 위기 배경으로 아세안+3(일본, 중국, 한국)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동아시아’ 지역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탄생했습니다. 한국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제안에서 2001년 때에는 아세안+3개국이 “동아시아 공동체”는 장기적인 목표로 정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동아시아공동체”는 이론의 장래성 뿐만 아니라 지역 각국 간의 협의해야 하는 정책 문제입니다. 2005년 동아시아정상회의(東亞峰會 East Asia Summit, 약칭 EAS)는 새로운 시작된 발단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참여하는 국가의 지역 안에 갈등이 점차 나타났습니다. “동아시아 공동체”의 목표로 전진의 걸음도 잠시 늦춰졌습니다. 이 배경과 동시에는 “중국굴기”의 문제를 어떻게 대응한다는 문제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예정된 시기를 넘은 중국의 영향력 증가를 견제하기 위하여 호주, 뉴질랜드와 인도를 원조 국가로서 동아시아정상회의를 가입했습니다.

2011년 때에는 미국과 러시아도 가입했습니다. 현재 18개 국가 체제가 되어서 동아시아 범위의 국제 정치의 각축이 발현되었습니다. 근데 매년에 개최하고 있는 동아시아정상회의는 지역간의 협력이다 보니 이미 멤버 국가들 서로 간에 ‘중국문제’를 논의하

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그것이기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하여 관심이 사라졌습니다. 강한 경제 실력으로, 예를 들으면 ‘일대일로’ (一帶一路) 등 교통수단으로 유라시아대륙 중심으로 넓은 경제 구역의 목표가 실현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일본은 “인도양 - 태평양해역”의 틀을 제출하고 중국에 대해 견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동아시아공동체(東亞共同體)”라는 말은 광의적으로 말하자면 동아시아를 비롯하여 지역협력에 관한 여러 시각에서 본 개념이 었고, 협의적으로 말하자면 2002년에 아세안+3는 미래 목표로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상이 항상 정체되어 있는 상태로 차지했습니다. 2016년에 성립된 “아세안경제공동체”(東協經濟共同體 ASEAN Economic Community, AEC)는 전세계 주목을 받고, 동남아시아 구역 경제협력으로 향해 한걸음을 앞섰습니다. 중국, 미국, 일본 등의 주요 나라들에 따르면 새로운 “아세안 전략(東協策略)”을 제시하고,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왕래가 강하게 펼쳐졌습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亞太)” 및 “인도·태평양(印度太平洋)”의 구상을 제시합니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의 바탕으로 더 넓은 유라시아대륙의 통합이 추진해졌습니다. “구역”의 범주와 양상 경합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역 구상의 경합에 따라 “동아시아공동체” 현제는 어려운 상황에서 처해 있습니다.

이종원교수님이 제시된 방침은 이하의 3가지였습니다.

1. 아시아 사람(동아시아) 신분공동체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지역, 국적, 구역, 세계 : 신분공동체의식 다중성 및 아시아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2. 아시아의 구역 협력(구역 일체화)이 막힌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원인이 또 무엇입니까?
3. 어떤 지역을 섭렵해야 될 것입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구역 안에 협력이 있습니까?

강좌 마친 후에 학생들이 열렬하게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일본어문학과 3학년 학생 진유린 (陳宥霖)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목적은 중국을 견제하고 싶은 것이라고 질문했습니다. 신문방송학과 4학년 학생 온신(溫馨)은 “포퓰리즘(民粹主義)”의 나타남과 그의 반대가 당하게 된 이유에 관한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일본어학과 4학년 주상영(朱相瑩) 학생은 현재 미국, 인도가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개념을 가입했는데 어느 규모까지 확장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설해야 할지 등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이종원 교수님은 학생들이 제시한 심도 깊은 질문들에 대하여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